

「冬の風物詩」

겨울의 풍물시

남국 미야자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추운날이 많아지게 되면서 외출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겨울에는 겨울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리빙인 미야자키에서는 겨울의 풍물시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행사로 불리는 ‘오쇼가즈’는 일본 겨울의 풍물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오세치요리와 오조니를 먹고, 참배를 가거나, 세뱃돈과 복주머니 등 즐길 수 있는 것이 한가득 합니다.



◆크리스마스

원래는 신도의 나라인 일본이지만, 지금에서는 크리스마스는 완전히 일본 겨울의 대표적인 이벤트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거나 치킨과 케이크를 먹습니다. 거리에는 아름다운 일루미네이션을 장식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루미네이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 것도 즐거움 중의 하나이지요.

◆절분

절분의 콩뿌리기는 일본의 전통적인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도깨비는 밖으로, 복은 안으로’라고 외치며 집 안과 밖을 향해서 콩을 뿌립니다. 절분의 콩뿌리기는 환절기에 생기는 액운을 내쫓기 위한 의식으로서 중국에서부터 전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의 발렌타인데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벤트입니다. 해외에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꽃이나 카드 메세지 등을 주지만, 일본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베(냄비)요리



그리고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베(냄비)요리가 있습니다. 나베(냄비)요리라는 것은 냄비에 고기와 야채 등의 재료를 넣고 냄비 그대로 조리하여 먹는 요리입니다. 나베(냄비)요리 종류는 다양하게 있으며, 여러명이서 냄비에 둘러모여 요리를 함께 나눠 먹습니다. 최근에는 혼자서 나베(냄비)요리를 즐기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개 한 것 이외에도 일본에는 겨울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직접 체험해보면서 추운 겨울을 즐겁게 이겨내 봅시다. 그러나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인 만큼 밀폐, 밀접, 밀집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 코너로의 질문, 의견, 요청 사항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MIF)로 연락주시길바랍니다. TEL : 0985-32-8457 FAX : 0985-32-8512

Email miyainfo@mif.or.jp

- 일상 생활에 관하여 질문 및 고민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국제 외국인 서포트 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41-5901 FAX : 0985-41-5902

Email support@mif.or.jp